

퇴임 앞둔 '재야 정보통' 광주 동부署 안천순 경위

“금남로 아픔이 제 아픔이었죠”

‘금남로에서 탈출을 꿈꾸다’
 ‘만년 정보과 형사’ 안천순(58·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경위가 오는 30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소회를 엮은 시집(詩集)의 제목이다. 1975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그는 33년 6개월의 경찰생활 중 31년 8개월을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했다.
 많은 사람은 그를 재야의 ‘정보통’으로 기억한다. 안천순은 80년대 후반부터 14년 동안 동부서 정보과 ‘재야담당’으로 일했다. 그런 그에게 ‘금남로’는 집이자 직장이었다. 서울 퍼던 군부독재시절, 광주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던 ‘금남로’에서는 누구도 집회허가를 받지 못했다. 5·18 민주항쟁 추모식도 80년 이후 여덟 번의 해가 바뀌고 나서야 열렸을 정도였다.

금남로 첫 5·18 추모식 이끌어내

금남로 추모식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안천순이다. 그는 88년 5월 추모식을 앞두고 지방경찰청장과 광주시장, 검사장 등을 찾아가 “도청에서 5월 추모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설득했다. 젊은 경찰의 당당한 행동에 뒷사람들은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금남로를 훨씬 넘어 유동까지 광주시민들이 꽂 들어찼다.
 몇 해 뒤 그는 ‘분신 정국’과 맞닥뜨린다. 1991년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씨가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이후 전남대 박승희씨, 노동자 윤용하씨, 택시운전사 정상순씨, 보성고 김철수 학생 등이 ‘폭력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잇따라 분신했다. 안천순은 그해 10명의 운구행렬을 망설임까지 지휘해야 했다.

시국사범 보증 서졌다 집 날리기도

틈틈이 써왔던 시와 5·18 투사회보 등 모아두었던 중요한 자료들을 불태워낸 것도 이 때문이다. (안천순은 30년이 넘는 경찰생활 동안 이 행동을 가장 후회한다고 했다) 몇 해 뒤 다시 펜을 들었지만, 그의 글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런 마음을 이해했을까, 아니면 ‘미운 정’이 들었을까. 재야활동가들도 그에게 만큼은 마음을 열었다. 공간기관 정보요원과는 차를 마시지 않기로 유명했던 안천순은 그와 친분을 맺고, 고 문익환 선생도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안천순의 시집 ‘발문(跋文)’을 써 준 문익환(전 조선대 교수) 시인은 ‘5·18 내란음모 주동세력에 해당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동정을 살피는 경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나 같은 사람 비슷한 시를 쓰는,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저항시, 사회시를 쓰는 시인으로 변모하고...’(중략) 이것이 광주가 안고 있는 특질이고, 모순이요, 고뇌이다’라고 그와 그의 시를 평가했다.

‘금남로 탈출을 꿈꾸다’ 詩集 펴내

정리 많은 그는 사업을 하겠다던 한 운동권 친구의 보증을 서줬다가, 화재로 친구의 사업이 망하면서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날리기도 했다. 13년 뒤 그 친구는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하지만 안천순은 “역사 앞에서 지은 죄가 더 많다”고 말한다. 그가 정년퇴임을 갖는 오는 30일 저녁 시집 출간기념식을 여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천순은 “이젠 중립적 입장에서 현대사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볼 것”이라고 퇴임 후 계획을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



오는 30일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안천순 경위는 14년 동안 동부경찰서 정보과 ‘재야담당’으로 일하며 금남로를 지켜왔다. 그는 “‘금남로 탈출을 꿈꾸고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래는 그가 퇴임식 때 발표할 시집 표지. /인현주기자 ahj@



다용도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재질 및 마감행형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지사 : 061) 337-0571



삼성 광주공장 출하 재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다음날인 20일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현장에 복귀한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가전제품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하면서 아연 활기가 넘쳤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광주서는 촛불토론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0일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함께 22일 밤까지 이어지는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했다.
 대책회의는 21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법국민행동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낮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대책회의는 21일 집회가 ‘6·10 항쟁’ 21주년 기념집회에 버금가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21일 집회에서 서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모래주머니를 1개씩 만들어 광화문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시위 행렬을 따라 운반해 쌓아올리는 ‘국민토성’ 쌓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힘내자 촛불’이라는 슬로건으로 1박 2일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우·전남 비상사국회의’는 48시간 국민행동과 별도로 이날 저녁 금남로에서 촛불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주말인 21일에는 ‘청소년이 촛불을 말하다’는 주제로 집회를 갖는다.
 이날 촛불 토론회에서는 촛불집회의 의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20일 저녁 촛불집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을 신청받아 현 시국과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인현주기자 ahj@·연합뉴스

장마전선 영향 주말 30~60mm 비

주말인 21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휴일(22일)에는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으며, 한 두 차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30~60mm.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됐다. 휴일인 22일에는 흐리고 비가 온 후 개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전망됐다. /강필성기자 kps@

절도로 3개월 버틴 ‘인터넷 친구들’

3월 동반가출 4명 체포

광주지역 빈집과 교회 등지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부랑자와 지체장애인, 학생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부랑자 성모(31·서울시 동작구)씨 등 4명은 지난 3월 초계 동반 가출했다. 광주에 특별한 연고가 없던 성씨 등은 광주천변 다리 밑이나 PC게임방 등지에서 지냈다. 며칠 후 남아 있던 돈마저 떨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재개발지역의 빈집과 교회 등지를 돌며 고철·폐사 등을 훔친 뒤 이를 내다 판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생활비가 바닥나면 또다시 범행을 내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훔친 돈은 50만원 상당. 이들은 지난 19일 출진 고철과 쌀 가마니를 신고 고물상에 팔려가던 중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씨는 경찰에서 “친구들이 배고파 하는 것을 보고 밥의 물건을 손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일 이들을 특수열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현주기자 ahj@

주목주목 주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6월 21일 (음 5월 18일) 전국날씨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21~26°C
부산	흐리고 한두차례 비	21~24°C
대구	흐리고 가끔 비	20~23°C
대전	흐리고 가끔 비	20~24°C
충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20~27°C
청주	흐리고 가끔 비	20~24°C
전주	흐리고 가끔 비	20~24°C
안동	흐리고 한두차례 비	20~26°C
경북	흐리고 한두차례 비	21~25°C
경남	흐리고 한두차례 비	21~27°C
제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1°C

사해남부
 안바다=북동~남동풍 과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과고 1.0~2.0m
 남해서부
 안바다=북동~남동풍 과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과고 1.0~2.5m
 목포 밀물 < 03:52 썰물 < 09:10
 여수 밀물 < 10:20 썰물 < 04:36
 여수 밀물 < 23:01 썰물 < 16:18
 ▲해돋이 05:18 ▲해질 19:50
 ▲달출 21:54 ▲달몰 07:09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날씨						
최저/최고	21/27	20/28	19/27	20/26	19/28	19/28

채무 고민 60대 목매 숨져

지난 19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사는 조모(60)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 목매 숨져 있는 것을 건물주인인 이모(7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건물 임대문제로 조씨 집에 갔는데, 조씨가 목매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지기 직전 조씨는 “정말 미안하다. 이제 경찰에 잘 지내라”는 내용의 유서를 안방에 있던 달력에 남겼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 5년 동안 채무관계로 고민해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시위전력 시탈락 9명 국가 상대 23억 손배소

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56)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81년에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2억~3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군사정권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를 ‘국가관과 사법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최저점을 부여했으며 이 때문에 정 의원과 한인섭(49) 서울대 법대 교수 등 10명은 2회 연속 시험에 탈락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 법무부는 올해 1월 당시 탈락자 10명 중 나중에 다시 시험을 쳐 합격한 진병헌(52) 변호사 등 4명을 뺀 나머지 6명을 합격 처분했다. /연합뉴스

억대 빚 축산농 부부 동반 자살

영암서...사료값 폭등·채무 비관 음독

영암을 키우며 억대 빚을 지고 있던 60대 축산농 부부가 자신의 집과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새벽 5시40분께 영암군 금정면 김모(62)씨의 집에서 아내 정모(여·61)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3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오전 9시께는 남편 김씨가 자신의 집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은 “광주에 있는 처가에 다녀온 뒤 새벽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가

안방에 쓰러져 있었다”며 “방안에는 농약 병이 있었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인근을 돌아보다 저수지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 부부는 농장과 식당 등을 운영하다 실패해 수 억원의 빚을 진데다 최근 폭등한 사료 값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최근 키우던 염소 800마리 중 400마리를 팔았지만 빚을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많은 빚과 염소를 키

취업사기 연루 경찰관 광주 서부서 파면 결정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자자동차 취업사기 사건에 연루된 K모(35) 경찰관을 파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K경장은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유지 못하고 범행에 연루된 점만으로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직위해제된 K경장은 친구인 광주시내 H다방 주인 선모(36)씨 등 2명이 광주 지역 구직자 20여명에게 ‘기자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명당 3천만~4천500만원 등 7억원을 받아 가로운 취업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종행 기자 golee@

신용카드 승인정보 조작 거액 채권 40대 지역형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하를 판사는 20일 신용카드 매출 승인정보를 조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사용사기)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매출을 일으켜 돈을 편취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피해금액이 3억6천800여만원에 이르므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방송국 PD 사칭 여고생 성추행

○광주북부경찰은 20일 방송국 PD를 사칭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류모(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풍동동 한 가게에 들어가 어머니 대신 가게를 보고 있던 여고생 A(16)양에게 “내가 방송국 PD인데, 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느냐”고 말하며 A양의 차마를 들어 올리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것.
 ○경찰에서 류씨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방송국 PD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랬다. A양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에 있던 류씨를 검거/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